

2026년 9월 21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추석 연휴 이전 눈치 싸움

이번 주 코스피는 1) 주요 연준 인사 발언 이후 미국 장기물 시장 금리 변화, 2) 9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3) 한국 9월 수출(~20일), 4) 미중 정상회담, 5) 국내 연휴 수급 공백 여부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7,000pt 재진입을 시도할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레인지 6,500~7,150pt).

이번 주에도 주가 회복력을 이어갈 수 있는 지가 관건. 일단 지난 주 슈퍼 워크처럼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뉴욕 연은, 시카고 연은 등 주요 연준 인사들 발언 및 유가 향방에 따른 미국 10년물 금리 변화가 증시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물론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 일정으로 3거래일 밖에 개장하지 않는 만큼, 3거래일 동안 “관망심리 확산 → 거래대금 감소 → 얹어진 호가 및 수급 공백”의 경로가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 다만, 연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것이기에, 단기적인 수급 공백 속에서 출현할 수 있는 변동성을 시세의 본격적인 변화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RA 유지윤
jiyun.yoo@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18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 장기금리 상승 여파로 주 초반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FOMC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반도체 대형주가 반등하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며 약보합 마감 (KOSPI -0.23%, KOSDAQ +0.79%)

주 초반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5%를 상회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 중동 정세 불안과 AI 투자 속도조절론까지 겹치자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됐고, 기관도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6,600선까지 후퇴. 이후에도 고유가·고금리 부담과 9월 FOMC 경계감이 이어지며 약세 흐름이 지속됐으나, 주 중반부터 낙폭이 컸던 반도체 대형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분위기가 반전. 연준의 25bp 금리 인상도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추가 충격은 제한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피는 6,900선에 근접해 마감.

한 주간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 핵심 변수는 국제유가와 미국 장기금리, 9월 FOMC였음. 주 초반에는 유가 100달러 돌파와 미 10년물 금리 5% 상회가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준 가운데 AI 투자 속도조절 우려까지 더해지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 반면 주 후반에는 FOMC 결과가 시장의 예상 범위에 머물며 정책 불확실성이 낮아졌고, 유가와 금리 부담도 다소 진정되면서 위험선호가 회복. 이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

업종별로 의료/정밀기기(+3.28%), 섬유/의류(+2.55%), 전기/전자(+1.46%), 제조(+0.64%), 금속(-0.1%)이 상대적 강세를 보인 전기/가스(-6.49%), 보험(-5.99%), 건설(-4.86%), 증권(-4.26%), 오락/문화(-3.73%)는 부진한 흐름. 한편, 외국인(-8조 7,576억 원)은 기계/장비(-2,438억원), 운송장비/부품(-1,731억원), 화학(-1,694억원), 유통(-1,300억원)순으로 순매도, 기관(+ 8,799억 원)은 제조(+8,251억원), 전기/전자(+5,710억원), 화학(+1,725억원)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2026년 9월 21일

KIWOOM WEEKLY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9월 21 일	월	한국	~20 일까지 수출 (YoY)	9 월	-	56.0%
			~20 일까지 수입 (YoY)	9 월	-	19.0%
		휴장	일본(경로의 날)			
9월 22 일	화	미국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9 월	-	4
		EU	소비자기대지수 (잠정치)	9 월	-	-15.5
		휴장	일본(대체 공휴일)			
9월 23 일	수	한국	소비자심리지수	9 월	-	104.5
		미국	S&P 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9 월	53.6	53.9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9 월	56.0	56.5
		휴장	일본(추분의 날)			
		행사	메타 커넥트 2026 (~24 일)			
9월 24 일	목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9 월	89.0	88.8
		미국	신규주택매매 (MoM)	8 월	1.3%	-10.5%
		휴장	한국(추석 연휴)			
		행사	미중 정상회담			
9월 25 일	금	미국	내구재주문 (MoM)	8 월	-0.3%	1.1%
			미시간대 소비자자기대지수 (최종치)	9 월	47.8	45.8
			미시간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최종치)	9 월	-	4.6%
			미시간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최종치)	9 월	-	3.4%
		실적	코스트코			
	휴장	한국(추석), 중국·대만(중추절)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 주 코스피는 1) 주요 연준 인사 발언 이후 미국 장기물 시장 금리 변화, 2) 9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3) 한국 9월 수출(~20일), 4) 미중 정상회담, 5) 국내 연휴 수급 공백 여부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7,000pt 재진입을 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레인지 6,500~7,150pt).

18일(금) 미국 증시는 메모리 가격 상승 전망에 따른 마이크론(+3.9%), 샌디스크(+10.1%) 등 반도체주 실적 기대감에도, 미 10년물 금리 5.0%대 재돌파 속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따른 수급 변동성 확대 여파로 혼조세 마감(다우 -0.2%, S&P500 +0.2%, 나스닥 +0.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3%).

지난 주 초반부터 앤스로픽 CEO 발언이 촉발한 AI 속도조절 노이즈에 휘말렸던 가운데, 주중 내내 미국 10년물 금리 급등, 9월 FOMC, BOJ 회의 등 매크로발 불확실성으로 부담이 높았던 상황. 그러나 AI, 반도체와 같은 주도업종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이를 소화해가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주 초반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 AI CAPEX 사이클, 기업 실적 모멘텀 등 증시 본질적인 동력인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기에, 그만큼 외부 충격에도 주가 회복력이 강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대목.

이번 주에도 이 같은 주가 회복력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 일단 지난 주 슈퍼 워크처럼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뉴욕 연은, 시카고 연은 등 주요 연준 인사들 발언 및 유가 향방에 따른 미국 10년물 금리 변화가 증시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 그 과정에서 코스피가 저점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는지, 지난 금요일 8거래일 순매수로 전환한 외국인의매매 방향성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

9월 내내 시장은 미국 10년물 금리 5.0% 돌파 과정에서 변동성과 급락을 맞다 보니, 매크로 경제심리가 높아져 왔음. 하지만 9월 FOMC를 기점으로 경제 성장 및 이익 개선이 뒷받침되는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이 감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따라서, 3분기 실적시즌을 통해 이익 모멘텀 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이 같은 금리 상승에 대한 주가 내성이 유지되는 경로를 베이스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 좀 더 보수적인 단기 관점으로 봐도, 최소 9월 30일 예정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까지는 상기 베이스 경로를 우선순위로 두고 갈 필요.

이 밖에 시장이 주시해야 하는 이벤트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관세 휴전뿐 아니라 AI, 첨단 반도체, 희토류 등 양국의 기술 패권 및 공급망 이슈가 의제로 나올 예정. 다만, 이번 회담을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 및 관세 갈등의 본격적인 완화 계기로 해석하기 보다는, 이들 간의 갈등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을 이벤트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

AI 역시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이지만, 최근 AI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양국이 구속력 있는 합의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조절론을 중국에 시간을 주는 일로 규정하고 있고, 중국 역시 동조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 이번 회담이 AI 경쟁 지속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면 AI 발전 감속론의 정책 현실화 가능성을 낮출 것이며, 이는 반도체 포함 AI 인프라 전반의 투자심리를 개선시켜줄 전망.

2026년 9월 21일

KIWOOM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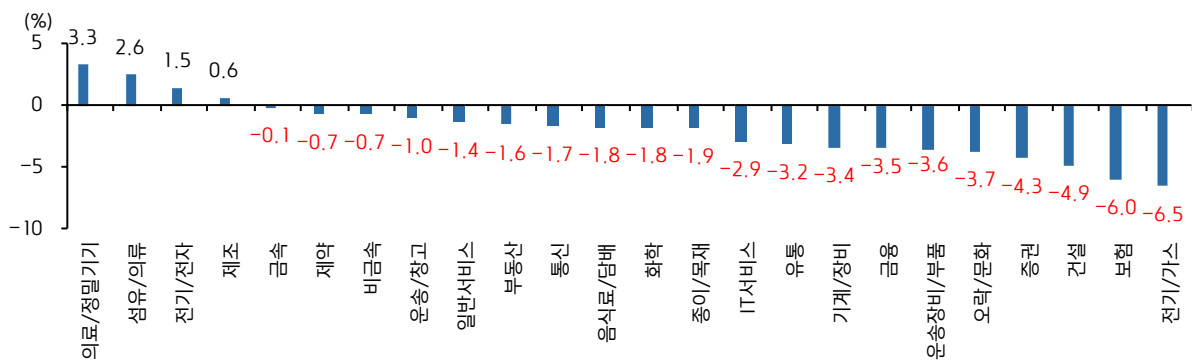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기존 매크로 및 AI 이슈를 소화해가면서 주가 복원력을 재차 확인하는 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 물론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 일정으로 3거래일 밖에 개장하지 않는 만큼, 3거래일 동안 “관망심리 확산 -> 거래대금 감소 -> 얹어진 호가 및 수급 공백”의 경로가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 다만, 연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것이기에, 단기적인 수급 공백 속에서 출현할 수 있는 변동성을 시세의 본격적인 변화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6,894.23	2.7	-0.2	0.4	63.6
대형주	7,539.84	2.9	-0.2	0.3	72.2
중형주	4,105.59	0.3	-1.2	0.8	10.3
소형주	2,399.53	0.2	-0.5	0.4	-4.7
코스피 200	1,090.23	3.0	0.0	0.8	79.9
코스닥	827.12	0.6	0.8	-0.9	-10.6
대형주	2,013.22	0.4	0.2	-2.6	-10.6
중형주	863.46	1.1	2.1	1.5	-4.0
소형주	2,388.33	0.5	1.2	1.8	-7.2
코스닥 150	1,396.11	0.2	-0.2	-3.1	-9.8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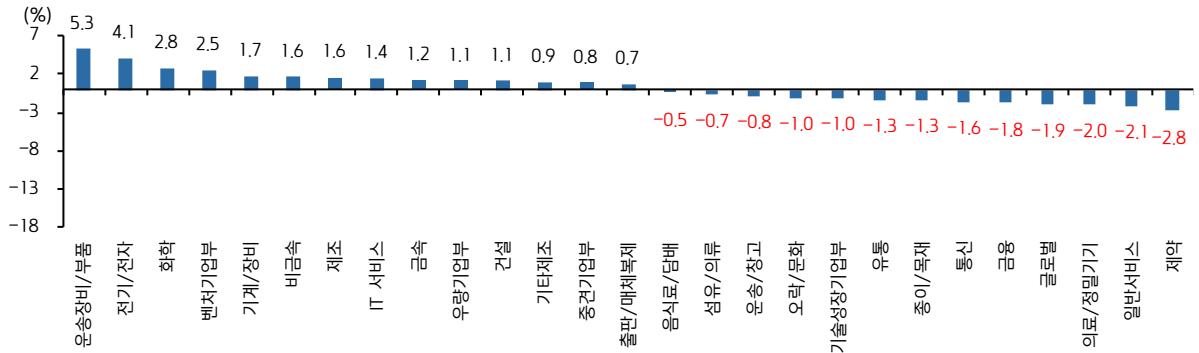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9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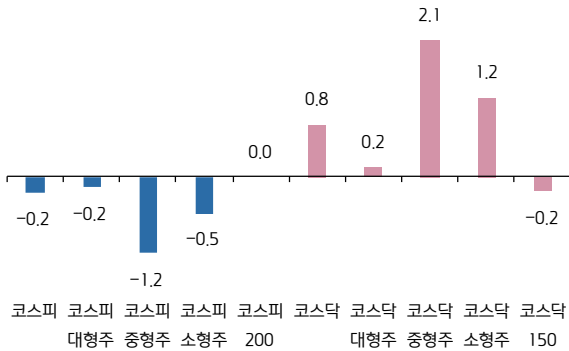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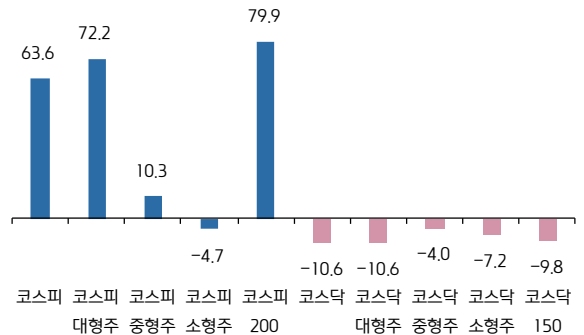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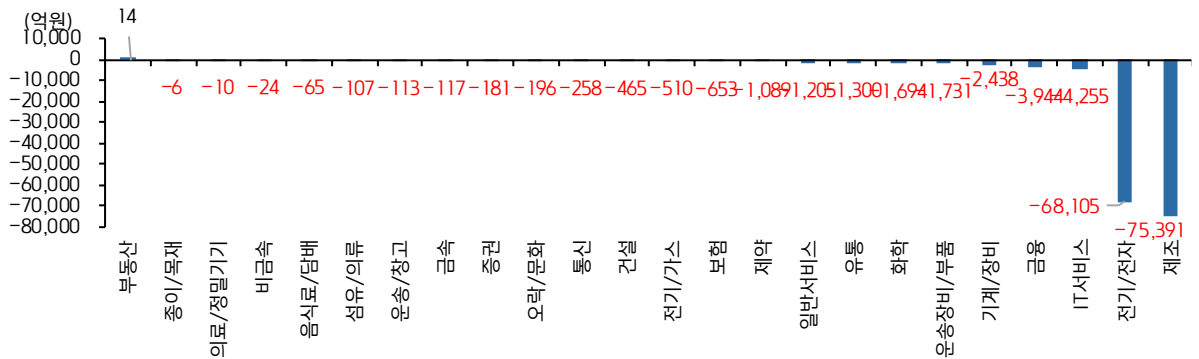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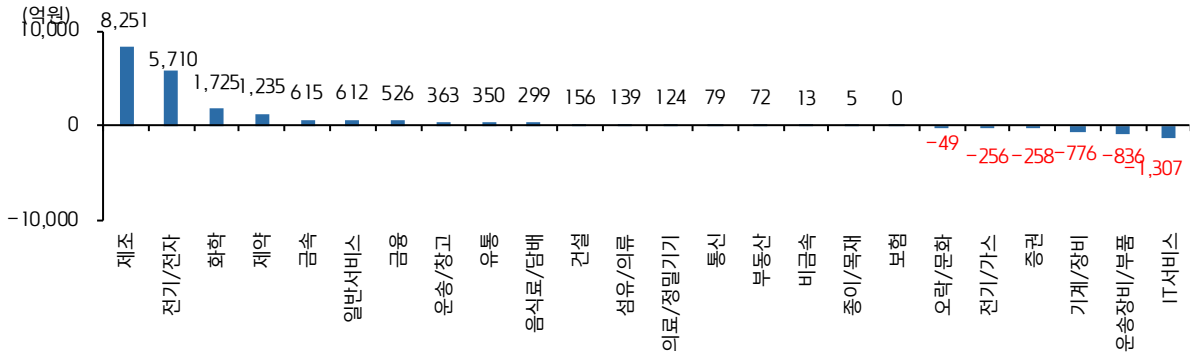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9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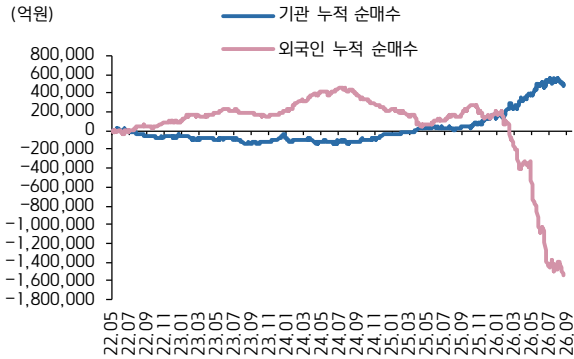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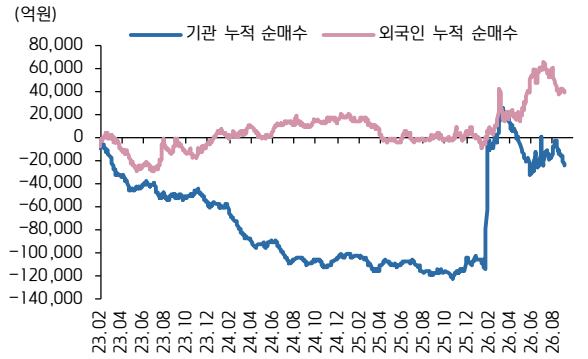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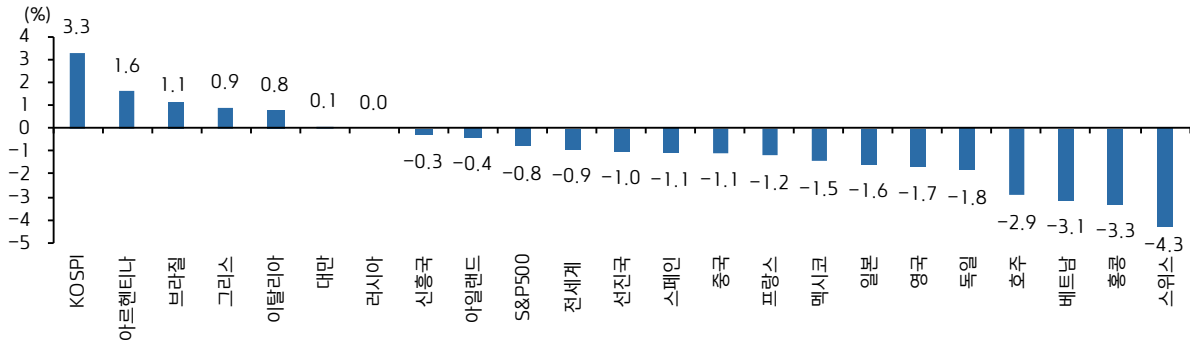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9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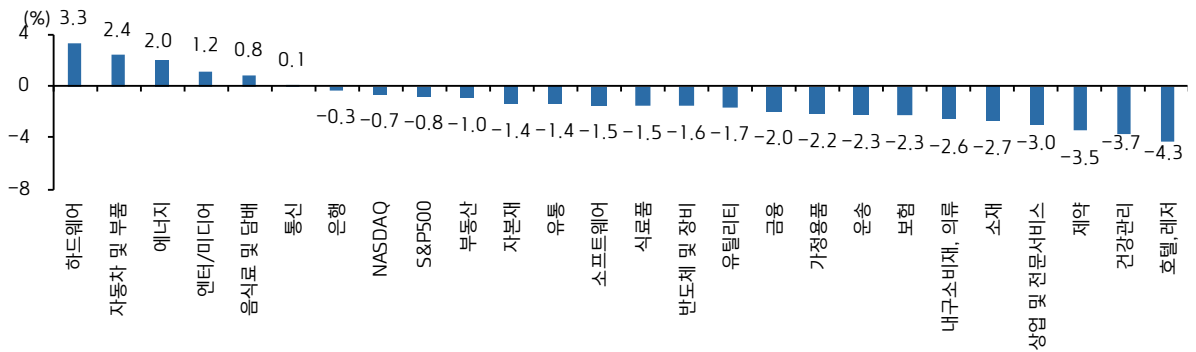
KIWOOM WEEKLY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